

힘들지 않고 사는 삶이 어디 있으랴

신윤식

먼지만 날리며
황량하게 메말라가는
저 깊은 속 어딘가에
혹여 한 방울 물기라도
스며드는 날이라면
그것은 내게 찾아와
조용히 파고드는
한 조각 말씀 때문이라.



무겁고 힘들어도
차마 내려놓을 수 없는
삶의 자리 끝까지
안고 가야 할 고뇌의 문제들
어떻게 끌어안아야 할지 몰라
고민되고 힘겨워 할 때
그분이 말씀되어 찾아와
신음하는 마음에 함께 하시면
어느새 차가운 영혼은
불꽃같은 믿음으로 일어나리라.

힘들지 않고 사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픔과 고통에 짓눌린 영혼이어도
말씀이 이슬 되어 스며들 때면
어둠 같은 그 속에도
영원한 불 밝혀질 터이니
힘들어 신음하는 사람들아
가는 길이 고난과 고난으로
점철된다 해도
우리 영혼에 불 밝혀 줄
주님과 함께 남은 길을 걸어보자

MATHETES

제23권

36

2015년 9월 6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사55:8)

 **은석교회**
GOSPEL EUNSEOK CHURCH

www.onlycross.net

담임목사

신 윤 식

시무장로

이영민 이성희

협동장로

조규현

주일오전설교

하나님의 열심

겔 20:40-44

죄가 있음으로 해서 신자가 받는 유익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의 기독교 인들은 죄를 무조건 자신에게서 잘라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교회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도 '죄를 짓지 말라' 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말들이 공허한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 채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인간이 자신에게서 죄를 잘라낼 수 있을까요? 나무에서 가지를 모두 잘라낸다고 해도 나무가 살아있는 한 가지는 또 다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마지막까지 생존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벌레가 바퀴벌레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독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지독한가 하면 머리가 없어도 10일간 살 수 있다고 하고 공기 없이도 45분 정도를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바퀴벌레보다 더 지독하고 끈질긴 것이 죄입니다. 물론 죄의 끈질김을 바퀴벌레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그만큼 이 세상에서는 죄의 끈질김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로부터 죄를 잘라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 는 말이 과연 가

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축소하여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자신에게서 잘라내야 하는 것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과연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전히 죄를 남겨 두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죄를 그냥 그대로 두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그냥 두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만은 죄 없는 자로 살아가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신자조차도 죄 가운데 두시는 나쁜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있음으로 해서 신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죄가 유익한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동원하여 일하시는 일하심으로 인해 신자가 누리는 유익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그 유익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그보다 좋은 세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욕, 불의, 시기, 미움 그 어느 것도 없는 본래의 에덴동산의 상태 그대로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세우는 것에 뜻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동산에서 죄를 허용하시고 지금까지 그대로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죄가 없다면 우리는 편안하겠지만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애통을 알 수 없고, 애통을 알지 못하니 죄를 덮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과 감사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도 알 수 없을 것이고, 자신의 나약함을 알지 못하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지도 않게 됩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죄가 없으니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게 될까요? 생각전대 말씀에 대한 아무 느낌도 없을 것입니다.

20장을 보면 인간의 죄가 참으로 끈질기게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장은 바벨론에 포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 여러 사람이 에스겔에게 물으러 온 것으로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 시기로 나누어서 그들에게 반복되어 행해지는 조상들의 죄에 대해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5-8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시면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으로 떠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를 쏟고 진노를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10-16절에서는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수 있는 율례와 규례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알게 하는 표징으로 삼습니다(11,12절).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않고 규례를 멸시하였으며 안식일을 크게 더럽힙니다(13절).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18-26절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의 자손들, 즉 2세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우상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를 쏟고 진노를 이루실 것을 말씀합니다(21절).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가 반복되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에 대한 말씀도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계속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의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였으며, 이방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9,14,22). 그리고 오늘 본문 44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30절부터는 바벨론에 포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 역시 앞에서 등장한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힌 것입니다(31절).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이스라엘이 묻는다고 해서 그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반드시 다스릴 것임을 말씀합니다. 34-36절의 내용에서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조상들을 심판한 것처럼 심판하실 것을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모든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또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언급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않고 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것입니다(44절).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와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심으로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조상 대대로 가증한 죄를 행하고 우상으로 스스로를 더럽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심판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국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 자는 구원 받고 지옥 갈 자는 지옥가게 되어 있으니 굳이 힘써 믿으려고 할 필요 없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반복되는 죄와 심판의 선언 속에서 역시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취지를 명시하는 자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보다 자신이 중심이 된 자기의 삶에 몰두하고 있는 헛되고 악한 생각일 뿐입니다.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목자가 자기 양을 우리에 집어넣으면서 그 수를 세고 살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모든 양이 아니라 자기의 양을 살피 우리에 들어가게 하고 그들을 언약의 줄로 매어 그들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줄로 맨 자라 해서 고통에서 면제하여 다른 곳에 모아 편히 쉬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을 심판 아래 있게 하셨고 심판 아래 있게 하신 이스라엘 속에서 언약의 줄로 맨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가증한 죄를 행하고 우상으로 스스로를 더럽힌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43절의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는 말씀처럼 자신들의 가증한 죄와 스스로를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있음으로 해서 신자가 받는 유익인 것입니다.

신자는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는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벌주지 않겠지’ 라는 의도로 회개하는

것은 회개를 가장한 위선이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위해 하는 회개일 뿐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위해 하는 회개의 목적은 자기 구원에 있습니다. '회개하면 죄가 용서되고 구원 받을 수 있다' 는 것에 의미를 두고 회개를 이용하여 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미워하게 된 신자는 구원에 초점을 두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이런 신자에게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않는다" 는 선언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진심으로 복되고 기쁨이 되는 선언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주 여호와와 딸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고 말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성전을 세워 중단된 제사를 계속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물과 첫 열매와 성물을 받으시겠다는 뜻일까요? 그런 것이라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물을 바치지 않아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것입니까? 제사와 제물에 대해 이스라엘은 철저했습니다. 제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길이고 수단이고 방법이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섬기는 그들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물과 첫 열매와 성물로 언급되는 것들이 율법에 명시된 제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물, 첫 열매, 성물은 참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없고, 첫 열매도 아니며 성물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요구를 실행할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예물이 되고 첫 열매가 되고 성물이 될 존재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고 첫 열매이며 성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줄에 매인 신자는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언약에 의해 오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만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자신의 그 어떤 행함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길과 스스로를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미워하게 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로 죄를 덮으시고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열심 또한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길만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 무엇에도 포기할 수 없는 그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주일오후설교

(8.16일 설교 77강)

그리스도와 교회

엡 5:22-33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부부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2절)고 말한 것을 보면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내세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과 뒤에 언급되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내용 때문에 지금껏 교회에 대해 말하던 바울이 갑자기 가정 문제를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고 말하고 이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2절)고 말하는 것을 보면 계속 복종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내용은 지금의 부부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실천을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만약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면 순순히 수긍하며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설사 받아들였다 해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고 하면 역시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사랑은 자기 몸을 내어 놓으신 사랑

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여 결혼을 하겠지만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일 남편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부부가 된다 해도 드러나는 것은 복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현실뿐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 짙게 깔려 있는 것은 지독한 자기중심이라는 죄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부부가 아닌 혼자 몸으로 살아갈 때는 잘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부라는 관계에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때는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고 말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8절)고 말합니다. 때의 악함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사건 사고를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중심에서 자기를 위하여 살면서 복종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실체를 보며 때의 악함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늘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고 악함은 자신 밖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바울의 의도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머

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교회를 위해 몸을 버리는 사랑을 베푸셨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사랑 아래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심으로 악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되기 전에 우리는 홀로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살면 됩니다. 함께 하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책임져 주는 분을 의지하는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책임지시고 대신 우리는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문제를 대신 책임져 주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종은 힘에 대한 강제적 굴복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을 머리로 여기고 주께 하듯 복종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을 아내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고 복종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적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26,27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남편의 아내 사랑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고 말씀으로 아내를 거룩한 자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남편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남편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이 같은 사랑을 받은 관계로 함께 하는 신부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위치에 있는 교회로서 남편에게 할 일은 복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합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존재하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정의 행복이 등장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면 가정이 행복해 집니까?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여기고 사랑한다 해도 그것으로 아내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사랑한다 해도 아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바로 그것이 남편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 놓으셨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라며 늘 불만만 늘어놓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 만족, 자기 행복으로만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된 가정은 없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를 하나로 묶어서 가족이라고 하지만 참된 가족 역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주면 내 가정이 행복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환상 속에 사는 것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종하라는 남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단지 돈 벌어드주는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남편임을 알고 아내 된 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큰 사랑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모였을 때 증거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만 드러날 때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있기에 그리스도께 잘 보여야 할 것이 없습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부부가 서로에게 잘 보이고자 한다면 뭔가 노리고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잘 보이고자 하는 것은 부부의 관계에서 나올 수 없는 모습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고 해도

아담이 하와를 보고 말했던 뱀 중의 뱀요 살 중의 살이라는 관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린 죽는 순간까지 하나가 아닌 둘이라는 나누어진 관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참된 가정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때문에 아내든 남편이든 서로에게 기대를 하기보다 주를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기보다 주를 먼저 생각한다면 상대방의 트집을 잡기보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먼저 마음을 두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조금씩 만족과 감사로 채워진다면 남편의 부족, 아내의 부족보다는 나 자신의 부족함이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교회에서 나타나지는 것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설교

(9.2일 설교 66강)

그 아버지에 그 아들

창 26:1-11

본문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거하던 땅이고 이삭이 거하던 땅에 그런데 그 땅에 또 다시 흉년이 든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시작부터가 인간의 환상과 착각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이 있는 곳에는 그 어떤 환난이나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그 모든 나쁜 것을 물리쳐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흉년이 들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것만 생각해 봐도 인간이 아닌 신앙의 세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땅에 흉년이 들자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됩니다. 20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랄로 가서 아비멜렉을 만나는 데 아브라함이 만난 아비멜렉과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은 동일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비멜렉은 애굽이 왕을 바로로 칭한 것처럼 그랄이 칭하는 왕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와는 약 70년의 간격이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동일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동일인이라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누이라는 거짓말에 속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리브가가 누이라는 거짓말에 속는 결과가 되는데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음을 생각한다면 동일인은 아닐 것입니다.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 그랄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7절에 보면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아내 리브가에 대해 묻습니다. 아마 리브가가 예쁘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가 누구냐?’ 라고 물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 역시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우므로 그랄 백성들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일까 염려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오로지 자신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잘못을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경험담을 말하면서 ‘너도 나중에 리브가로 인해 위기에 처하면 나처럼 해라’고 가르쳤겠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 일에 대해 가르쳤다면 ‘내 내로 인해 위기에 처해진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고 아내라 하라’고 가르

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이삭에게서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인간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와지게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해도 자신이 위기에 처한 순간에는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스스로를 지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믿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풍성한 분이요, 등등의 많은 지식들이 머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자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날 수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바라는 절대적인 믿음의 모습만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자신이 아는 바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머리에 담긴 지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본성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를 다 지켰다’고 자랑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라며 부끄러워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알고 자신을 알게 된 신자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거할 땅을 먼저 선택하라는 등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었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웃음으로 반응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아들이 없자 하갈과 동침하여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들을 얻는 등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입니다. 또한 그랄 사람을 두려워하여 시라를 누이로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바치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그 또한 아브라함이 약속을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뿐이고, 아브라함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임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특별히 율법, 규례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할례 외에는 율법으로 주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두를 지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장차 모세에게 주어질 율법과 계명 또한 지켰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는 법조항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성경의 어떤 항목과 조항을 지켜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지향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힘과 노력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게 하는 것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너 때문에 내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 했고 그렇게 되었다면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며 이삭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이삭이나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인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비멜렉은 매우 정의로운 사람이며 백성들을 법으로 잘 다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이 아비멜렉처럼 법으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다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말 할 것 없이 죄에 대해 심판을 받고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로 대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실력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약속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복의 사람들입니다.

칼럼

이단 146 - G12(지투엘브)

G12가 예수님께서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12명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한 부분이 없다. 요 6:40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고 말한다. 영생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영생의 길로 세상에 오신 것이고 길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따라서 굳이 예수님의 비전을 언급하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러한 비전으로 제자를 부르셨다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좁은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죽는 길로 가는 제자로 삼기 위해 부르신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가 결국 십자가 사건에서 실패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죽는 길로 가게 된 것이다. 즉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는 일에 인간은 실패했고 다만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에 의해 주께 붙들린 자가 되어 복음을 위해 살게 된 것이다. 즉 제자의 존재는 복음의 전파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역할로 부름 받은 것이다. 이점에서 서부터 G12는 제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이해는 G12만이 아니라 전도를 강조하는 현대 교회의 총체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G12의 창시자는 ‘세자르 카스텔라노스’ (콜롬비아 ICM, 국제카리스마미션 교회)로 알려져 있다. 그는 예수님이 12 제자 삼은 것을 기본 원리로 G12를 시작

였고 이 선교운동 이후에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속칭 뒷문으로 빠져나간 교인들의 숫자 또한 많은 것에 대해 회의를 느꼈다고 한다. 그 후에 그는 1985년 한국의 조용기 목사의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방문하여 순복음교회의 셀 조직을 롤모델로 사용하면서 성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본인 스스로 밝히는 G12의 동기에 대해서는 1983년 “너의 교회는 하늘의 별들만큼 비웃기의 모래만큼 커져서 사람 수를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의 부인도 영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12개의 돌이 있었는데, 그는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라고 증언한다. 이것을 보면 세자르 카스텔라노스의 G12는 신비주의적인 직통계시와 예언을 근거로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로는 카스텔라노스가 알파운동과 순복음교회의 셀 조직을 변형시킨 것이며, 그것에 신사도운동적인 성향을 접목시킨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조용기 목사의 영향을 받은 세자르 목사는 조용기 목사를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로 여긴다. 지난 7월 27-2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5 G12 컨퍼런스에서도 세자르 목사는 조용기 목사를 초청하여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로 소개하면서 자신이 10여 년 동안 복회에 혼신을 다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복회를 그만둔지 4개월이 되는 어느 날, 아내와 함께 해변으로 휴양을 갔는데, 그 때 조용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이란 책을 가지고 갔었고 그 책을 통하여 오늘날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꿈을 받았으며, 거기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원리를 발견했다는 간증을 하기도 한다.

이 컨퍼런스에서 세자르 목사의 12제자 중의 하나인 앤드류 목사라는 사람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가?’ 를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꿈을 가져야 하고, 꿈만 꾸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게 주신 꿈을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30분

어린이예배 주일오후 1시10분

중등부예배 주일오후 1시10분

금요기도회 오후 7시30



(상사화)

오늘의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눅 18:15-17)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전 예배

11:00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79장**
교 독 문 **25(시47편)**
기 도 **이영민 장로**
찬 송 **411장**
성경봉독 **골 20:40-44**
찬 양 **성가대**
설 교 **신윤식 목사**
하나님의 열심 (44강)
기 도 **설교자**
찬 송 **80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3**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기도 : **이성희 장로**

*포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14:30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185장**
기 도 **서장남 집사**
찬 송 **95장**
성경봉독 **엡 6:10-12**
특 송 **조규현 장로**
설 교 **신윤식 목사**
전신갑주 (80강)
기 도 **설교자**
찬 송 **348장**
주기도문 **다같이**

다음주일기도 : **오정희 집사**

다음주일특송 :

수요예배

19:30 인도: 신윤식 목사

창세기 67강

은석소식

1. 신자는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뜻을 두지 않으면 보이는 세계에 붙들리고 집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 가시고 보이지 않는 은총의 세계가 날마다 확고하게 여러분께 다가와지기 바랍니다.
2. 예배 후에 제직회 모입니다.